

중국 위생 방역의 근대 변천과 성격

위 신중 (余新忠, 남개대)

【발표요지】

본 발표에서는 오늘날 일상생활 중의 위생 표상과 중국의 위생 방역 역사를 통해 중국 근대 위생 시스템 및 그 성격을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전통적인 위생 방역 관념과 행위에 대한 정리를 통해 근대 이후 중국의 위생 방역의 ‘피하는’(避疫) 것에서 ‘예방하는’(防疫) 것으로의 전환, 개인에서 공공(公共)으로의 역사적 변천을 관찰한다. 서방에서 시작된 현대 ‘위생’ 시스템은, 못사람들의 흠모를 자아내고 문명의 진보를 대표하는 ‘현대’라는 화려한 걸모습으로 치장되어 인간 사회의 곳곳에 배어있는 권력처럼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명의 진보를 나타내는 ‘현대’의 의미를 떠나, 그리고 질서정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더욱 낮아진 전염병 감염률을 제외하고, ‘위생’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정치와 문화상의 패권과 권력이었다. 어느 정도의 불공평, 불의, 신체 자유에 대한 감시와 구속을 초래한 것이다. 이러한 비판과 성찰을 통해, 현재의 중국 위생사 연구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현대화 서사(现代化叙事) 패턴을 타파함과 동시에 중국의 현재, 미래의 위생 건설 병폐(病弊)를 바로 잡는데 교훈이 될만한 역사 자원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발전과 강성(强盛)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오늘날 중국 사회가 민중의 권리보장을 경시한다면, 장원한 시각에서도 중화민족의 미래와 발전에 있어서 결코 복음이 될 수 없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하고자 한다.

【약력】

위 신중 (余新忠 / Yu Xinzhong)

저장 린안 출신으로 난카이대학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교토대학에서 박사후 과정을 밟았다. 현재 난카이대학 역사학부 교수 겸 부학부장, 중국사회사학회 부회장 겸 비서장을 맡고 있다. 연구 분야는 중국의료사회문화사와 명청 사회사. 주요 저서로는 『청대 강남의 온역과 사회』, 『청대 위생 방역 시스템과 근대 변천』 등이 있다. 『역사연구』, *Chinese Studies in History*, 『동양사 연구』 등 간행물에 중국어·영어·일본어 논문 90 여편 발표. 장강학자장려계획(长江学者奖励计划), 국가 백천만인재 프로젝트 등 국가급 인재 계획에 당선. 전국 우수 박사논문상, 국가 철학사회과학 문고상, 교육부 인문사회과학 우수 성과상(1 등, 2 등) 을 수상했다.